

전북 수출기업과 유관기관들 머리 맞댄다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행사 개최... 선도기업 성공 노하우 공유·수출 현장 애로사항 토론 통해 해소

전북지역의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해 도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26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지역 수출선도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장정보, 바이어·판매망 확보 방법 등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집단 토론을 통해 해소해 주는 '전북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CEO, 임직원 및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수출지원기관협의회는 전북중소기업청과 전북도, 전주세관, 중진공

전북본부, 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등 19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연회 방식에서 탈피해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주제로 중소기업청장, 수출선도기업 CEO 등 패널과 청중기업이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상용차용 알루미늄 전문업체 (주)알록스와 자동차 발전기용 전압조정기 제조업체인 제논전장(주)의 수출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해외 진출 성공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패널기업인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한 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중소기업청장 및 수출지

원기관 관계자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이 대해 패널들이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청중참여 소통시간은 수출기업이 패널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출선도기업, 정부·수출유관기관에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순서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청 유튜브 및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인터넷·모바일로 생방송 중계됐으며, 동시에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참여도 이뤄지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대적·국가적 임무"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약을 위해서는 G2 시장에 집중된 수출의존도를 대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청장은 "이를 위해, 중기청에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BI)를 확충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기술교류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R&D·정책자금·인력·국내외 마케팅 등 모든 정책역량을 수출 확대에 결집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스파라쿠아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천연온천탕·저잣거리 운영 등에서 큰 호응 얻어

도심 속 온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주시 중화산동 스파라쿠아 전주온천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됐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알려져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한방과 같은 건강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뷰티(미용), 스파와 같은 매력적인 현대문화도 가지고 있는 만큼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번 '웰니스관광 25선' 선정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관광공사의 자체 조사를 진행해 후보지 74개를 찾아냈다.

이어 학계, 여행업계, 시장전문

가, 외국인 평가위원 등 총 50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쳤다.

스파라쿠아 전주온천은 천연온천탕과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저잣거리 운영 등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홍삼스파와 함께 전북지역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로부터 2012년 온천허가를 얻은 스파라쿠아 전주온천은 수소탄산천으로 수소탄산마그네슘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신경통, 류머티스, 피부혈행항진, 방광염, 결핵, 천식 등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정성진 대표는 "이번 웰니스관광 25선 선정을 계기로 더욱 특색있는 시설개발과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한옥마을에 이어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복합점포 확대 전략... 금융사별 온도차 뚜렷

관련 계열사 없는 지방 금융지주들 소극적 행보 보여

금융권의 복합점포 확대 전략이 금융사별로 온도차가 뚜렷하게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금융지주들은 영업망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우리은행·지방금융지주들은 관련 계열사가 없어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금융권(신한·KB·하나·JB·BNK·DGB금융, 우리·기업은행)의 복합점포는 총 126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일반 지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복합

점포 수는 지난 2014년 10월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이 복합점포 네트워크 확보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 4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 및 보험 복합점포는 총 37곳을 선보였다.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GOLD&WISE 북동PB센터를 개점하며 복합점포 31개를 확보했다. KB금융은 연내 10여곳을 추가로 개설해 은행권 최대 규모의 복합점포 영업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이들 금융사의 복합점포 확대 전략은 계열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객 입장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소개받고, 증여·상속·세무·부동산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리은행과 지방금융지주사들은 복합점포를 합사리 확대하지 못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25일 기준 8곳의 복합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신규 개점할 곳이 없다.

B금융도 현재 보유한 복합점포는 1곳에 불과하고 확대 전략도 갖고 있지 않으며, BNK금융은 기존 4개에서 3개로 오히려 복합점포가 줄었다.

복합점포를 확대하지 않는 금융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 이외의 증권 및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열사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JB금융도 증권 계열사가 없어 현대증권과 손을 잡고 복합점포를 내놨지만 현대증권의 KB금융 인수 이후 복합점포 확대가 요원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지주 내 계열사가 아닌 외부 금융사와 협할 경우 고객관리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어 쉽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복합점포에 대한 고객 니즈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지 않으며, BNK금융은 기존 4개에서 3개로 오히려 복합점포가 줄었다.

복합점포를 확대하지 않는 금융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 이외의 증권 및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열사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JB금융도 증권 계열사가 없어 현대증권과 손을 잡고 복합점포를 내놨지만 현대증권의 KB금융 인수 이후 복합점포 확대가 요원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지주 내 계열사가 아닌 외부 금융사와 협할 경우 고객관리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어 쉽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복합점포에 대한 고객 니즈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금융감독원 전주-전북은행, 다정다감 금융문화 교실 개최

기술보증기금, 4차산업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는 4차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산업에 접목하는 등 융·복합을 통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창업보증공급을 20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준비된 기술형 창업을 촉진하

기 위해 대학, 공공연구소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 현장 기술경험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숙련형 창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4.0스마트 팩토리보증', '마이스터(Master)기술창업보증'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연간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70세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

전북농협은 사회공헌 1위 기관으로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행복센터'는 돌봄대상자와 전문상담사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용콜센터를 구축해 전화 한 통화로 전

문상담사의 체계적인 상담이나 자원봉사자 방문, 전문적인 서비스 중계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및 문제해결 방향 제시 등을 제공해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촌 거주 70세 이상 농업인은 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시군지부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금융감독원 전주지원과 전북은행은 26일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주부를 초청해 금융문화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언어 또는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들에게 금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금융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예방 등의 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요령을 금융감독원 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정감을 주는 행사가 되고자 마련한 체험형 교양강좌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이점수 전주지부장장은 "우리 금융환경에 익숙치 않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잘못된 금융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금융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습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